내 주처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공부하기 힘들다

☞ 21면에서 계속

지 여러분이 나를 발견치도 못하면서, 번연히 이 몸이 불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놈이 뭣고' 하고 있다면 빈 맷돌이 그냥 덮어놓고 돌아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목적을 딱 세워 고 일을 하지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계획도 없이 일하시게 돼 있습니까? 시장에를 가도 무슨 계획이 있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을 봐 오죠? 계획 없이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떠돌아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의정을 내도 크게 내는 것은, 바로 나를 발견한 뒤로부터 의정이 크게 나온다 이 소립니다. 의정이 나도 그것을 해결 못 하면 이슬을 맞아 가면서도 며칠을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 못 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의 상황이고, 내가 지내 보니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또 생활 안 하면서도, 사찰의 운영도 살림입니다. 우리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도 살림이고요. 몸뚱이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으니 그것도 살림입니다. 그러니 나를 발견해 가지고 둘로 보지 않는다. 일체 환상의 꿈이든지 생시든지, 환상에 부처가 나오든지 귀신이 나오든지 어떠한 것에 속지 않는다. 그것이 항복을 받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둘로 보지 않는다. 모든 환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수련을 하면서 다 체험을 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수없이 나오는 대로, 컴퓨터에 수록이 된 것을 다 무심으로 돌려서 이것이 화해지면 모든 중생들이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 내 몸부터 내 마음부터 알아야 하고, 내 몸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중생들부터 제도한다. 내 집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바로 그때서는 삼십이상의 그 몸이 금강신으로서 구족해진다. 이것도 이름입니다.

요 말 하기 전에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이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한 그것도 이름이요, 아라한이니 아나함이니 하는 것도 이름입니다. 구족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요, 삼십이상도 이름이요, 그런 진리에 속한 그 광대무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를 넘어서서 자기가 완성됐을 때, 자기 몸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바깥의 경계와 내 경계를 또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수련을 쌓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그때는, 즉 나투는 방법이라고 보죠. 네가 못 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일, 또 네가 정히 한다면 그것을 빼서 나한테다가 요리를 한다든가,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줘서 요리를 한다든가 체험한다. 이러한 진리에 속한 문제는 자기가 실험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이런 말을 못 한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건 여러분이 깨쳐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주장자를 너를 줄 수 있고 네 주장자를 내가 뺏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뺏는 게 아니라 그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천백억화신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불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으로 화한다는 거는, 원하는 대로, 용도대로 이 모습도 바꿔질 수 있고, 일하는 것도 바꿔질 수 있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 놓기

내 마음이 좌정되고 편안해지고 슬기롭게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좌선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모든 게 좌선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를,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을 찾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을 찾고, 지신이니 용신이니 조왕이니 산신이니 신장이니 약사보살이니 하고 천차만별로 이름을 지어 놓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천차만별로 돼 있고요. 털구멍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눈구멍을 통해서 용도대로 응해 주시니 삼십이응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투는 데도 고정되지 않다고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고정되게 살지 않으니 공한 것이다. 그 나툼도 고정된 게 없어서 내일은 어떻고 모레는 어떻고 후년엔 어떻다는 예언이 하나도 없고, 즉석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 괴로움이 없든 선이든 악이든, 그때그때 그대로 화해 나툰다 이 겁니다.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살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보살이거든. 생각을 내지 않은 생각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지 내가 생각을 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보살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함이 없이 한다,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함이 없이 들이고 낸다면, 들이고 낸다 하는 그 이름조차도 걸리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말로는 욕심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벌써 하려는 욕심, 가지려는 욕심이 많아요. 또 보는 것도 좋은 걸로 보이고 언짢은 걸로 보이고, 나쁜 놈으로 보이고 좋은 놈으로 보이고 이러죠. 그러나 나쁜 놈도 항상 나쁜 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놈도 항상 좋은 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높은 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낮으면 낮은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물정이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항상 한 찰나의 살림살이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끝없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뜻을 깨달은 분, 근본을 깨달은 분과 머리로 깨달은 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도리는 철학도 갖다 댈 수 없고 언어도 붙질 않는 자립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비행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이름 붙일 자리가 어디 있으며, 거기 악과 선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육십이견에 도달한다면 어떠한 계급도 없는, 그러니깐 보이지 않는 중생들 보이는 중생들, 생각이 없는 중생들 생각이 있는 중생들, 일체 무 유를 한데 합쳐서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만법에 나투시는 그런 분들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일컫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일컫는다.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되게 있다면 그 이름이 붙질 않습니다. 부처가 없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부처가 막상 있다면, 보살이 있다면 보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됐다면 하시라도 나한테 질문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지혜를 넓혀서 스스로서 지견이 넓어지고 한눈으로 보게 됐다면 말입니다. 내가 항상 지금 용어로 말씀드리죠. 한눈, 심안의 눈으로서 볼 때나 육안으로 볼 때나 둘이 아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라도 거죽만 보시지 속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건 육안이죠. 동시에 본다면 아마도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심안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심안과 육안이 둘이 아닌 까닭에 심안이라고 그냥 이름했을 뿐이다. 이름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천체무전통신기는 어디에서 무엇을 듣는가? 듣고 보아야 무엇을 하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뭐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주처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공부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주인공' 이라는 이름을, 여러분한텐 주인공이라는 이름이 똑 적합합니다. 왜? 삼위일체가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됨이 없이 공했으니까. 왜 별다르게 이런 이름을 지어 놨느냐 하지만 지어 놓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면 바깥의 부처님들은 어떡하느냐 그러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법당에 오면 부처님은 거기 계시고, 법신도 화신도 보신도 거기 다 계시다. 법당에 와서 있으면 그 부처님하고 둘이 아니요, 그러니 항상 편안한 마음, 끄달리지 않는 마음, 무거운 마음, 믿음직한 마음이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거죠. 변소에 가도 여러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변소에 계시죠. 똥 누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따름이지 진리로 봐서는 변소나 안방이나 주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다면 아예 대천(大千)으로, 즉 우주, 무정물이나 유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일체 생물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물질이든지 우주개공을 홈빡 다 싸고 집어삼키는 그러한 도리의 여건을, 그때는 지견을 넓힌다고 합니다.

이 체가 없는 도리를 우리가 습득하고 알려면, 평상시에 몸을 조아리고 앉아서 좌선을 해라 참선을 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앉으나 서나 자나, 졸리면 자고, 자는 것도 참선이니까. 그리고 이태 삼 년을 끊어져서 못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선(禪)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 생각을 했는데 삼 년 후에야 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공간이 없어. 한 찰나야. 그러니 아침에 나갈 때 생각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끊어뜨리고 저녁에 생각났다 하더라도 그건 공간이 없다 이거지. 그냥 그대로 한 찰나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말라 이거지. 몇 시간 후에 생각이 나든, 한 시간 후에 생각이 나든, 곧바로 생각이 나든 걸리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좌정되고 편안해지고 슬기롭게 발을 떼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좌선이라. 일을 하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좌선이야. 밥을 먹으면서도 좌선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좌선이야. 모든 게 좌선 아닌 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어.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불가부득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름해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라고 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증득해 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증득했다는 그 말 자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름이니라. 내가 만약에 증득했다고 생각한다면 증득한 게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그런다면 자기는 부처님의 그 뜻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 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해서 돌아가는 그 속에 부처님과 중생이 다 한꺼번에 한자리 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고, 의정하지 말고, 모든 것에 속지 말고 놔 버리는 그런 첫째 단계를 잘 넘기시면,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발견해 가지고 수련하는 것도 잘 넘기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대도를 이루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름이지만요. 허허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대도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왜냐? 때에 따라서는 돼지가 돼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벌레가 돼야 하고, 미생물이 돼야 하고, 무정물이 돼야 하고, 부처가 돼야 하고, 산신이 돼야 하고, 신장이 돼야 하고 찰나찰나 그렇게 바뀌지는데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없다! 그 이름조차도 없다. 반면에 떳떳하다. 아주 떳떳하구나!

가랑잎 하나 떨어지는 걸 봐도 싱긋이 웃음이 나고,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봐도 바다와 같고, 바다를 봐도 물 한 방울과 같고, 우주 전체를 생각해 봐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가 하면 모래알같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뜻을 잘 파악해서 생활 속에서 참 삶의 보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살림살이! 자비와 더불어, 화목과 더불어, 조화와 더불어, 내 몸의 조화 화목 또는 가정의 화목 조화 또는 사회, 국가, 세계, 우주 대천세계가 화목해서 돌아가는 그 뜻을 안다면 빛보다도 더 빠른 내 이 마음이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8년 1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